픽셀라이팅 기술로 소통…자율주행차 상태도 표시애플 의존도 낮추는 LG이노텍, 사업 다변화 나서  
  
  
  
  
  
  
  
LG이노텍의 ‘넥슬라이드’ 제품. LG이노텍 제공엘지(LG)이노텍이 차량용 조명 사업을 연매출 수조원 규모로 키우겠다고 선언했다. ‘애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엘지이노텍은 차량용 조명 모듈 사업 전략을 13일 발표했다. 지난해 연매출 2천억~3천억원 수준인 차량용 조명 모듈 사업을 수조원 규모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이다. 다른 전장부품 포트폴리오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다, 자율주행 기능이 발전하면 조명 시장이 더 커질 전망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엘지이노텍은 현재 휘어지는 소재로 만든 차량용 입체조명 모듈 ‘넥슬라이드’를 만들어 팔고 있다.회사는 자율주행과 전기차에 최적화한 제품을 개발해 몸집을 불린다는 계획이다. 일단 다양한 문구·애니메이션 효과를 낼 수 있는 ‘픽셀 라이팅’ 기술을 내년까지 완성하기로 했다. 이는 운전자-운전자(V2V)나 운전자-보행자(V2P) 간 소통을 돕거나, 특정 색깔로 자율주행차의 주행 상태를 표시하는 데 쓰일 전망이다. 에너지 효율을 높인 차세대 넥슬라이드도 내년까지 개발을 끝내 중저가 전기차로 저변을 넓힐 계획이다.이는 회사 매출에서 미국 애플의 비중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엘지이노텍은 애플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회사다. 회사의 지난해 매출 중 80.4%(16조5607억원)가 애플 쪽 매출이다. 이에 엘지이노텍은 사업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